



동티모르·사모아·케냐서도 YTN 시청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YTN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설치

YTN이 전세계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실시간 위성방송을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이후 해외동포들의 호응이 갈수록 커

매일 본다"면서 "인근 지역에 일본군과 파키스탄군도 파병 돼 있지만, 자국 뉴스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뿐인데 자국

지고 있다. 특히 해외 공관 측과 교포 신문·방송사, 한인회, 현지 상사 직원 가족들의 관심이 크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오지나 남태평양 섬에서도 YTN 위성방송을 통해 고국의 생생한 소식을 접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의 편지나 메일이 최근 답지하고 있다.

동티모르에 세계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상륙수부대원들은 "국내 소식과 이라크 전황 보도 등 모든 뉴스를 YTN 위성방송을 통해

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동포 50가구, 280명이 사는 남태평양 사모아 섬의 한 동포는 "비록 몸은 미국만리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YTN 방송을 보면 고국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사는 것 같다"며 "YTN이 한민족공동체를 선도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 케냐 주재 대사관 직원 손영민씨는 케냐 교민 550명 중 현재 5가구 정도가 YTN 위성방송을 수신하고 있다고 본사에 연락해 왔고, 파키스탄 주재 대사관 카라치 분관에 근무하는 김탁균씨는 메일을 통해 위성수신 방법을 본사 관계자와 주고 받은 뒤 4월 17일부터 정상적으로 YTN 방송을 보고 있다며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YTN은 전세계 위성방송을 위해 미국 PanAmSat사의 PAS-2, PAS-9, PAS-10 등 3개 위성의 채널을 임차해 3월 1일부터 실시간 한국어 위성방송을 시작했다. 세계 위성망 구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모두 70만 가구, 약 300만명이 해외에서 YTN을 시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YTN 이라크전 1보... CNN보다 빨랐다



분, YTN 11시 34분, CNN 11시 36분, FOX 11시 39분) YTN은 이어 곧바로 CNN을 동시통역으로 연결해 이라크 대공포 발사, 2차 공습, 부시 대통령 전쟁 선언 등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저력을 보였다. 동시통역에서도 한국외국어대 동시통역대학원 곽중철 교수를 출연시켜 가장 정확한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YTN의 이번 이라크전 속보 방송은 다른 매체의 추종을 불허했다. YTN은 개전 이후 전황 관련 긴급 자막을 5백여 건이나 내보냈고, 전쟁을 보는 다양한 시각과 반응을 알리기 위해 '아랍언론 시각' 코너를 마련해 아랍권 언론의 보도 내용 등도 전했다.

YTN이 CNN보다 먼저 이라크전 개전 소식을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YTN은 지난 3월 20일 이라크전 관련 뉴스특보를 방송하던 중 AP통신을 인용해 오전 11시 34분에 바그다드 공습경보를 자막으로 최초 보도했다. (미 NBC 11시 32

YTN은 미국의 침공이 시작되기 2시간 전인 3월 20일 오전 9시부터 이라크 전역이 미국에 함락된 4월 15일까지 27일간 뉴스특보 체제로 편성해 이라크전 속보 상황을 집중 보도했다.

YTN 이사회, 표완수 사장 내정



YTN 이사회는 4월 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새 대표이사로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표완수 전 경인방송 사장을 내정했다.

표완수 YTN 사장 내정자는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74년 경향신문에 입사해 80년 강제 해직된 뒤 시사저널 국제부장, 경향신문 국제부장, 경인방송 보도국장 등을 지냈다.

YTN은 5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표 사장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백인호 YTN 사장은 지난 3월 6일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언론환경도 변화의 물결을 타야 한다"며 "회사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4월호 HEAD LINE

- 121 ▶ 해외출장 중에 만난 YTN
- 131 ▶ 해외 시청자 편지 - 사모아·동티모르
- 141 ▶ 이라크전쟁 - 바그다드 취재기
- 151 ▶ "DMB, 독과점 개선 계기로"
- 161 ▶ 인사드립니다 - 신입 기상캐스터
- 171 ▶ 프로그램 탐방 - 「과학과 미래」 제작기
- 181 ▶ '뉴스 퍼레이드' · '뉴스 포커스'
- ▶ YTN 시청률 급상승...
- ▶ 쿠웨이트서 본 '이라크 전쟁' 취재기

해외출장 중에 만난 YTN

“정말로 그렇습니까? 대단하군요.”



김희준 (정치부)

3월 26일, 오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 한일 외무회담 취재 차 워싱턴을 향해 KB81편에 몸을 실었다.

13시간여 태평양 상공을 날아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 워싱턴행 비행기로 갈아타기까지는 3시간여가 남아 있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 나와 윤영관 외교장관 일행과 20명의 기자단을

맞이했다.

점심 식사를 위해 향한 곳은 플러싱 다운타운. 뉴욕 거주한인의 70%가 살고 있는 동포 밀집 지역이다. 공항에서 30여분을 달려 번듯한 상가 건물에 자리한 ‘영빈관’이라는 한식당에 도착했다.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이층으로 올라선 순간 복도에 설치된 50인치 벽면 TV속 우하단의 ‘YTN로고’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우리 일행과 일일이 인사하던 여 사장님, ‘YTN기자’라는 나의 소개에 “여기서는 YTN이 최고예요”라며 손을 꼬옥 잡아줬다. 오찬 자리에는 조원일 총영사를 비롯해 뉴욕 대사관 관계자들이 대거 함께 했다. 조 총영사를 비롯해 대

부분 외교관이 집에서 YTN을 본다며 정치, 외교,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고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게 돼 ‘답답함’이 사라졌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사관에서는 아직 시청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맨해튼 일대에서는 음란영상물 등의 차단을 위해 워싱턴에 설치된 필터가 몹시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설명.

드디어 출장의 제 1목적지인 워싱턴 도착. 숙소인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만난 양성철 주미대사는 내게 “YTN에서 많이 봤습니다”라며 특별히 인사를 건넸다. 주미대사관에서는 물론 각 직원들이 가정에서도 우리 뉴스를 접한다는 것이었다. 포도맥 강변의 바람보다 더 시원한 소식이었다.

윤 장관과 파월 장관의 첫 공식 회담을 비롯해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린스펠드 국방장관과의 면담 등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일정으로 가득찬 3박 4일이 정신없이 흘러갔고 우리는 다음 일정을 위해 일본으로 향했다.

30일 오후,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 새도 없이 곧바로 한일외무회담이 열린 이쿠라 공관 행. 회담 모두부분을 취재한 뒤 결과 브리핑을 기다리며 가진 대사관 만찬자리에서 오중석 공사와 박영해 서기관은 직원 대부분이 안방에서 YTN이 인기라며 추켜세워 줬다.

하지만 도쿄대사관에서는 YTN을 보기 위해 파라볼라 안테나까지 설치했지만 도쿄타워의 지상파용 전파가 너무 세 결국 시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5박 6일의 출장. 3개 주요도시에서 만난 한국의 외교관과 동포들은 YTN을 통해 고국과 세계로의 눈을 열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호텔에서 YTN을 시청했다던 소식이나 남태평양 피지 여행 중에 봤던 우리뉴스까지 떠올리니 5대양 6대주로 뻗어 있는 YTN의 위력이 더욱 실감났다. 더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 또한 무거워졌다. 그리고 다시 서울. 미국의 대이라크전이 시작됐고 국제부로 파견돼 ‘속보’라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던 어느 날 한 시청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조금전 배석규 워싱턴 특파원께서 앵커에게 지도를 꺼내달라고 하더니 그 지도를 마치 옆에서 보듯 설명을 하시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나의 대답. “YTN은 위성을 통해 전 세계 권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배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저희 뉴스 화면을 보면서 바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대단하군요.” 세계로 뻗어 있는 YTN은 국내 시청자들에게도 더욱 생생하고 설득력 있는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YTN 시청률 급상승... 전쟁 이전 2~3배 수준

뉴스전문채널 YTN의 시청률이 지난 3월 20일 이라크전 개전 이후 급상승해 최고의 인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조사기관인 TNS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라크전이 발발한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달 동안 YTN의 케이블TV 시청 점유율(전국 케이블 가입 700여 가구 대상)이 평균 13.15%를 차지해 케이블 62개 채널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점

유율은 전쟁 전의 평균 점유율 6% 정도와 비교하면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개전 이후 한달 동안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날은 모두 18일간이었고, 2위 6일, 3위 3일, 4위 1일, 그리고 점유율 5위를 한 날이 이틀간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쟁이 시작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연속 점유율 수위를 지켜, 지난 2001년 9·11 테러 때의 6일 연속 점유율 1위 기록을 경신했다.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시청률의 경우도 전쟁 이후 한달 동안 평균 1.157%를 기록해 전쟁 전의 0.5~0.6% 선에 비해 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미·영 연합군과 이라크간의 교전상황 등을 집중보도한 3월 23일(일) 오후에는 시청률이 최고 4.31%까지 치솟는 등 이날 시청률이 하루 평균 1.669%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시청률로는 역대 최고치이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 YTN

이달의 기자상

YTN 김영수(경제부)·류충섭(사회1부)기자는 SK 최태

원회장이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권을 확대했다는 보도로 취재보도 부문에서, 사회2부 전주지국의 조영

권·여승구 기자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생생히 기록한 CCTV화면 단독보도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 한국기자협회로부터 각각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지난 3월25일 프레젠테이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류충섭, 김영수, 조영권, 여승구 기자(왼쪽부터)

YTN 신입사원 필기시험 실시

YTN 신입사원 모집 필기시험이 4월 20일(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실시됐다. 이날 필기시험에는 1차 합격자 480명 중 328명이 응시했다. 최종 합격자는 면접과 토론 등을 거쳐 5월 22일 발표된다.

4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 YTN 신입사원 응모자는 모두 3,700명이다.

해외 시청자 편지 - 사모아 한인동포

하루의 시작과 끝

이 현 휘 동포/아메리칸 사모아

2002년 2월 20일 정오(한국시간 2월 21일 오전 8시), 아메리칸 사모아(AMERICAN SAMOA=미국령 사모아)에 대한민국의 케이블TV 방송 YTN이 위성 수신되어 현지의 케이블 방송을 통해 마침내 방송됐습니다. 이곳 아메리칸 사모아는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한국의 독산도의 반 정도의 크기)으로 한국의 원양어업의 전초기지(60-80년대=현재는 한 척도 없었)였던 곳으로, 그 당시부터 살아왔던 동포들이 상업 주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인동포의 수는 280명(어린이 포함) 정도로 한국인은 50가구 현지인(사모안)은 207가구 정도입니다. 한국인 가정이 모두 케이블 TV에 가입해도 50가구입니다. 이곳에서 YTN 방송이 되기까지는 이곳의 AMERICAN SAMOA CABLEVISION의 매니저와 저의 절친한 관계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방송을 한번 시청해보자는 저의 뜻에 따라 위성 수신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방송들은 모두가 수신하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YTN은 깨끗한 그림과 음향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메인 케이블에 ON AIR할 것이냐(?)

이었습니다. YTN측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화면을 송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에 동감하며, 우선 [시험방송]을 하는 동안에 방법을 연구하여 보기로 하였으며, 본인의 SAMOA NEWS 칼럼을 통해 [위성방송 서비스]라는 타이틀로 동포들에게 알렸고, 그 칼럼이 실린 신문을 YTN 본사에 FAX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달간의 시험방송이 성공적으로 송출되는 동안 한국동포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극에 달하여 CNN의 채널이 YTN으로 고정됐고, 35개의 채널 중에서 한국동포 50가정을 위하여 35번을 고정채널로 확보하여 24시간 송출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새천년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부터 [월드컵], [아시안 게임], [대통령 선거], [대구 지하철 참사], [미국 이라크공격] 등의 큼직한 뉴스는 물론이고, 교양/역사/대담/여행/스포츠 프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광고]까지도 이역만리 남태평양의 고독한 섬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없이 가까운 친구였고, 정보의 샘이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한국의 신문/방송을 접하던 우리들

은 손바닥만한 화면에다 그것도 계속 접속이 끊기는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속이 상했던가를 생각하면, 지금은 천당에서 꿈꾸는 기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년이 지난 2003년 2월 28일 아침 6시(한국시간 3월 1일 새벽 2시) YTN의 시그널을 잊어 버렸다는 [사모아 케이블 TV] 친구의 전화를 받고, YTN이 3월 1일부터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망 구축]으로 [PARAMETERS]가 변경되어 수신 불가능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곧바로 YTN 해외위성방송 담당인 김윤섭 팀장님과 김익현님, 주현득님께 이곳 사정을 알리고 담당자께서 변경된 [PARAMETERS]를 알려주셔서 다시 YTN을 사랑으로 시청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참여정부의 출범과 [이라크 전쟁] 정찰 미젠 인터넷도 CNN도 아닌 YTN으로 하루를 열고 YTN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곳 동포들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온종일 YTN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YTN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동포들을 위해 24시간 YTN을 송출해주는 사모아 케이블 TV에도 감사드립니다.

해외 시청자 편지 -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잊지 못할 파병생활 추억

노 광 태 상사 / 세계평화유지군 상록수부대 통신반장



상록수 부대원들이 나무방에서 YTN방송을 시청하는 모습

여기는 21세기 신생독립국가 동티모르입니다. 저희는 동티모르 섬에서도 서티모르 내에 있는 오쿠시 지역에 세계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어 동티모르의 경계와 민사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YTN 해외위성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 YTN 사장님을 비롯하여 전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술적 제한사항이 있을 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주현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작년 10월 동티모르로 파병되어 처음에는 아리랑 TV를 시청했으나, 아리랑TV는 한국어 방송이 제한되어 시

청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동티모르는 현재 방송과 통신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일부 주민들은 호주 위성방송을 수신하고 있고 라디오 방송은 서티모르(인도네시아령)로 부터 수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방송을 시청하기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YTN이 위성방송을 한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고 위성추적

작업 끝에 YTN뉴스를 시청하게 됐습니다.

YTN방송이 수신되는 순간 상록수 부대 지휘관을 비롯하여 모든 간부, 병사들의 환호소리는 지금도 잊지 못할 파병생활 중 한 추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어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국방부 통신부서에 근무를 했을 때, 국방부의 합참 고위장성들이 YTN을 즐겨보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케이블을 통해서만 방송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국영방송인 KBS나 종합방송사인 MBC, SBS가 위성방송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무궁화위성을 찾았지만 무궁화위성은 한국에만 위성 빔을

고정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돼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상공에 빔을 쏘려고 위성까지 쏘아 올렸나 초라해지는 대한민국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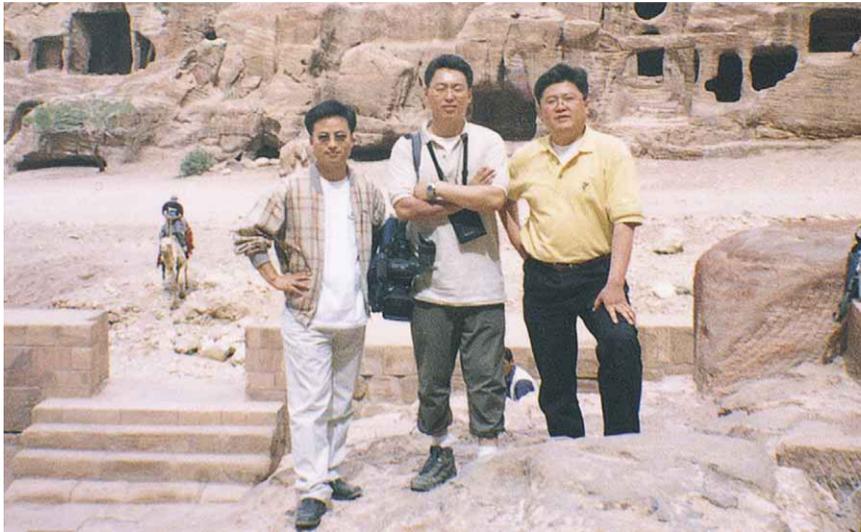
PANAMSAT2 위성을 이용해 YTN에서 해외로 실시간뉴스방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업을 시작하지 며칠 후에 YTN 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테나와 수신기만으로 위성을 찾는다.) 한국어 뉴스가 나올 때 저절로 YTN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국영방송도 아닌 YTN이 해외교민들을 위한 한국어 위성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게 됐습니다. 오쿠시에는 일본군과 파키스탄군도 파병 됐지만 일본군은 NHK 위성방송을 볼 수 없고 파키스탄군도 상황은 같습니다.

특히 YTN을 통해 3월6일에 있었던 상록수부대 사고와 관련 국내에서 영결식과 장례식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고 이번 이라크전쟁과 관련해 실시간 전쟁속보를 아주 유용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부대에서 YTN을 시청하고 있다는 소식은 동티모르 전체에 삼시간에 퍼졌고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 있는 한국대사관과 한국군 연락단에서 며칠 전에 YTN 위성방송 수신방법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YTN은 한국인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오기 전에는 한국인의 자존심이란 것을 별로 실감하지 못했지만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인이라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됐습니다. 3월부터는 PAS2, 9, 10 위성을 통해 전 세계 해외 실시간 한국어 뉴스방송을 실시하는데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방송, 한국을 대표하는 해외 위성방송으로 세계에 우뚝 솟은 YTN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다시 한번 해외교민을 위한 무료 위성방송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라크전쟁 - 바그다드 취재기

진정한 평화를...

이종국(국제부)



드르륵... 드르륵... 타당탕탕!

미군 장갑차에서 내뿜는 시벨진 기관총 섬광이 바그다드의 밤을 가를 때 우리는 팔레스타인 호텔 잔디밭의 터키 방송국 천막 아래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터키 방송국팀이 자리 들어간 사이 자리가 빈틈을 타 한기라도 막아볼 심산이었다. 바로 몇 미터 앞에서 새벽 밤하늘을 가르는 섬광과 귀를 찢는 굉음이 울리자 순간적으로 몸은 땅바닥에 얼어붙었다.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죽는거 아니?" 하는 생각과 함께 지난날의 편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우리같이 야영(?) 신세였던 기자들이 후다닥 호텔쪽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극도의 긴장과 공포는 그렇다치고 그사이로 조금씩 비집고 고개를 내미는 미묘한 흥분은 무엇일까. 우리는 카메라를 찾았다. 누가 시킬 수도, 등을 떠밀 수도 없었지만 우리는 미 해병대의 뒤를 따랐다. 미군 소대장의 계속되는 명령 하달. 긴장한 해병들의 얼굴.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총소리. 눈앞에 바로 전쟁이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ENG와 6미리를 돌려댔지만 화면에 담아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는 사실에 힘이 빠지기도 했다. 그 유명한 알자지라와 중군 전문 외신기자들과 함께 미군의 저지선 바로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 뒤늦게 한 국내 방송사 기자가 빼꼼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도 8,9명이나 되는 기자 중 가장 막내가 6미리 하나 달랑 들고서, 이미 총소리도 잦아졌고

상황은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때였다. 국내 기자들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바그다드에서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바그다드로 출발하던 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마음이 착잡했다. 앞서 들어간 취재팀들이 도중에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결정이 경솔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대로 강행했다.

고속도로 곳곳에 시커멓게 타버린 이라크군 탱크들이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었다. 오가는 길에 미군의 위협사격으로 긴장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우려와는 달리 다행히 약탈당하지는 않았다. 우리 앞뒤로 출발한 기자들이 카메라를 빼기고 폭행을 당하는 등 각종 사고를 겪은 것을 볼 때 비록 우리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천운은 있었지 않았나 싶다. 전기와 수도, 통신이 모두 끊긴 바그다드 시민들의 삶은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온 몸을 익혀버릴 듯 내리쬐는 태양이 지고 나면 뻘속까지 파고드는 한밤의 추위가 물려온다. 낡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잔디밭에서 밤을 보내는 7살난 사히프(나와 내내 친구처럼 지낸 이 소년은 비록 지난 걸프전때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의 눈동자만은 어느 누구보다 맑았다), 자기 몸만한 구두통을 들고 다니며 하루하루 식구들의 행계를 책임지는 8살난 이름 모를 소년, 검은 히잡(차도르)을 두른채 간난 아이를 업고 구걸하는 여인, 먹다 남은 비스킷을 건네주자 게걸스럽게 입으로 가져가던 청년들. 지금 바그다드의 모습이다.

매일 아침 호텔앞에 몰려와 외국의 가족에게 생사라도 알리고 싶다며 전화 한번 쓰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절난 위성전화 하나 없이 무모하게 바그다드로 들어간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고 미안하기까지 했다. 법과 질서는 사라지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만 더욱 병드는 '고통의 땅'. 단돈 7달러 때문에 서로 총을 쏘대는게 바그다드의 현실이다.

그러나 수천명의 기자들이 보내는 기사 대부분은 미군의 활약에 집중돼 있다. 특히 CNN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라크전 보도가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된 것인지 이곳에 와서야 깨달으면서 기자로서 너무나 왜소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군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수십년간 전란에 시달려온 이라크인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때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미사일과 포탄으로 갈가리 찢긴 채 시커먼 폭연에 짓눌려 있는 바그다드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 (사진 왼쪽부터) 권영희, 김민(촬영), 이종국 기사는 지난 4월 12일부터 4일간 바그다드에 들어가 취재활동을 벌였다

쿠웨이트서 본 '이라크 전쟁' 취재기

미사일과 소총의 싸움

전상규(국제부)



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는 무기일 것이다. 얼마만큼 첨단화 됐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이번 이라크전에서 미국의 첨단무기의 엄청난 화력앞에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이라크군 소총부대는 총 한방 제대로 쏘보지 못하고 오합지졸이 되고 만 것을 보면 여실히 증명된다.

이번 이라크 전쟁을 취재하는 언론사들의 경쟁도 최첨단 미사일부대와 낡은 소총부대의 싸움이었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사들은 아예 방송국 전체를 옮겨온 것과 같은 최첨단 미사일부대였다. 미국이 첨단무기를 선보인 것처럼 이들 언론사들은 첨단 방송장비로 속도전쟁에서 아시아 등 3세계 국가의 군소언론들을 녹다운시켰다

비록 소총부대지만 YTN도 지난 3월13일 전쟁 발발 1주일 전 나와 영상취재부 권석재 기사를 쿠웨이트로 파견했다. 14일 새벽, 우리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쿠웨이트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는 어두운 새벽인데도 장갑차와 중무장한 군인, 경찰들이 시내 곳곳에 배치돼 있어 삼엄한 분위기였다. 우리는 한국 기자들과 유럽 기자들이 주로 머무는 사파루 호텔에 짐을 풀었다.

권석재 기사는 도착 첫날부터 닦치는대로 흠쳐(?) 찍었다(쿠웨이트는 산유국이어서 곳곳에 석유시설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주요 보안시설이어서 촬영이 금지돼 있음). 보안시설 인근에서 촬영하다 쿠웨이트 경찰에 두번이나 연행돼 조사를 받았지만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 탓에 풀려날 수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현장 분위기와 스케치 위주로 취재를 했다.

미국의 공격이 시작된 3월 20일 새벽, CNN과 아랍방송들이 전쟁특보로 현장을 중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와 권 기사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국제전화가 모두 불통이었다. 전화가 폭주해 부하가 걸린 것이다. 우리는 미아가 되고 만 것이다. 방송참여도 하고 무사하다고 전해줘야 하는데... 전쟁 발발 후만 24시간만에 전화가 터졌다. 간간이 쿵, 쿵하는 소리가 호텔 방안까지 들려왔

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전쟁 이튿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갑자기 호텔 객실과 온 사내가 사이렌소리로 진동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향해 미사일을 쏘았다는 공습정보였다. 방독면과 카메라만 챙기고 방문을 박차고 호텔이 지정된 대피소로 향했다. 그 와중에도 권 기자는 카메라를 연신 돌리며 이리 저리 뛰며 프로정신을 발휘했다.

전쟁 3일째인 22일.

우리는 소총으로 미사일을 잡는 개가를 올렸다. 취재를 가기 위해 고용된 운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좀 먼 곳으로 취재 가니 평소보다 빨리 호텔로 오라고 했다. 호텔로 온 운전사는 “친구가 SK건설 현장 인근에 사는데 근처 바다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전화를 해 왔다고 한다. ‘그래, 바로 이게 기사다’ 우리는 당초 예정했던 국경지역 취재를 취소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져 화면은 찍지 못했지만 주민들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썼다. 그리고 그날 밤 위성으로 리포트를 송출했다. 그때까지 우린 그 기사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는데 다음날 타사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본사에서 YTN 보고 전화왔으며 어떻게 취재했느냐고 물어왔다. 뿌

듯하고 상쾌한 아침 출발이었다.

전쟁 6일째인 25일. 우리만의 완벽한 그림을 찍었다. 밤 9시 웨스턴 호텔에 캠프를 치고 있는 APTN에서 위성 송출을 마치고 쿠웨이트의 유일한 한국 식당인 고려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맞은편에서 수십 대의 경찰 차량과 군 차량들이 사이렌 소리를 내며 시내로 질주하고 있었다. 느낌으로 금방 대형 사고가 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를 돌려 경찰 차량 뒤를 따랐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앞에 멈춰 섰다. 쿠웨이트 군인들이 총부리로 우리차를 막았다.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석재와 나는 차에서 내렸다.

100여미터 전방에 폭발한 차가 어렴풋이 보였다. 외국 기자 10 여명이 보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차량 폭발이라고 말했다. 알고보니 10여분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30여분이 지나자 외국기자 수백명이 벌떼처럼 몰려 결국 현장보존을 위해 에워쌌던 군인들이 기자들에 밀려 방어선이 허물어졌다. 폭발한 차 한대를 놓고 취재 경쟁이 벌어졌다 카메라 부딪치는 소리와 세계각국의 욕(?)들이 튀어나오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용감한 권 기자는 맨앞에서 연신 카메라를 돌려댄다. 그리고 선배 빨리

온마이크 잡자며 재촉한다. 온마이크 문장도 생각해놓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카메라 앞에 세운다. 그렇게 해서 우린 완벽하게 취재하고 예정에도 없던 위성을 새로 청약해 새벽 2시에 본사로 쏘 보냈다. 다음날 아침 현지 한국기자들, 또다시 어떻게 취재했냐고 물었다. 그냥 운 좋게 지나가다 봤다고 했다. 이번 전쟁을 통해 쿠웨이트에서의 YTN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만큼 높아졌다. TV를 볼 수 없는데도 말이다. 인터넷을 통해 전쟁속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귀국하는날 에피소드. 쿠웨이트 공항을 출발해 우린 방콕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내렸다. 티켓팅하러 항공사 창구로 향하고 있었다. 마침 한국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카메라에 붙어있는 YTN 로고를 보고 반갑다는 듯 말을 건넨다

쿠웨이트 교민인데 한국에 잠시 들어가기 위해 나왔다면서... 그리고 YTN 사이트를 통해 전쟁 속보 계속보고 있다고...그러면서 “쿠웨이트에 있는 천상규 기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 잘안다”고 했다.

“그 천상규가 바로 접니다. 취재 마치고 철수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은 영광(?)이라며 면세점 옆 생맥주집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우리에게 맥주 한 캔을 대접했다.

DMB도입 : 어떻게 할 것인가

“DMB, 독과점 개선 계기로”



“올해 사업자 허가가 예정되어 있는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서비스에서 지상파3사를 견제할 가장 유력한 사업자인 뉴스채널 YTN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3개의 사업권을 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지상파 정책담당자나 방송학계의 반응이다. 지상파 방송3사와 대등한 경쟁을 통해 사업권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초기 확보한 YTN에 대한 이러한 평

가는 방송산업의 영원한 숙제인 독과점 구도의 철폐의 시금석으로 YTN의 역할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VHF 12번 대역을 활용한 DMB서비스는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통신융합형의 첫 신규서비스라는 점과 자유로운 이동수신이 가능한 영상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방송사,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및 단말기 사업자 등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주도적으로 멀티플렉스 사업권을 획득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바 있는 YTN은 지난 4월 2일(수)에는 한국방송학회(회장 이효성교수)와 공동으로 「DMB도입 :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세미나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학계와 관련업계에 상당한 CONCENSUS를 모아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정책세미나는 청중동원의 문제로 더 작은 장소를 원했던 방송학회의 당초 우려와 달리 500부를 준비한 세미나 자료집이 초반에 소진될 정도로 많은 청중들이 참석했으며, 세미나의 내용면에서도 정부측의 정책관련 기관인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DMB정책의 도입과 종합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했던 연세대 강상현교수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국진 박사가 발제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첫 발제자인 강상현 교수는 DMB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방송매체와 차별화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차별적 서비스여야 한다는 점과 서비스 도입에 있어 현 방송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상파 독과점 문제에 대한 개선이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사업자 구도에 대해 언급한 김국진 박사는 DMB서비스가 방송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신규 미디어서비스로 정의된 만큼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 선정은 방송 산업에 있어 균형적 발전이란 측면과 함께 다양성과 참신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방송사가 진출하더라도 기존 방송의 재진송이 아닌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개발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YTN은 올해안에 ‘방송산업의 매체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방송광고에서의 경쟁시스템 도입 방안’이란 방송계 현안에 대한 주제로 2회 이상의 추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기정 기자 한국과학문화상 수상

수상소감

“좀 쉽게 써라, 이렇게 어려워야 어디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나?”

비단 우리 회사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의 과학담당 기자들이 데스크로부터 듣는 귀에 박힌 주문이다. 사실 처음 과학기사를 다루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튀어나와 당혹스럽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탄소나노튜브 같은 원자단위의 정밀한 소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조작방법도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다. 또 인간의 생로병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유전자는 얼마나 복잡하고 헛갈리던지...

그래서 취재원들에게 기초적인 것부터 묻고 또 물어가면서 취재를 했는데 그들은 아마 ‘꽤 무식한 기자’라고 속으로 흉을 봤을지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방송이 ‘네이처’ 라든지, ‘사

이언스’ 지처럼 고도의 전문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일 이어서 최대한 취재내용이 왜곡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쉽게 쓰려고 애를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데스크로부터 “왜 이렇게 어렵게 쓰나?”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과학담당 기자는 전문가와 일반시청자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맡아야하는 숙명 때문에 이런 데스크와의 갈등은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끊임이 없을 것 같다.

YTN은 지난 1년 반 동안 과학전문 프로그램 “웰컴 사이언스”를 통해서 과학의 대중화를 선도해왔다. 또한 과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 학문이라는 인식 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 보도를 해왔고 아마 과학문화계에서 이러한 노력을 평가해 대한민국 과학문화상을 준 것 같다.

특히 황성수 부국장과, 이홍렬 문화과학부장 그리고 많은 웰컴사이언스 제작진들이 받아야할 상을 내가 타게된 것 같아 부담스러운 뿐이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과학보도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기정 기자



인사드립니다 - 신입 기상캐스터

“번개 한번 맞아 보고 싶어요!”



정혜윤 (기상캐스터)

지난달 말부터 방송을 시작한 새내기 기상캐스터. 초보답지 않게 능숙하고 친근한 방송 진행 솜씨로 사내 총각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데 봄처럼 상큼하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정혜윤 사우를 만나봤다.

▶ 본인 소개를

- 1978년 말띠구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공군 조종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광주, 강릉, 오산, 대전 등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는 여의도에서 마쳤습니다.(운중중학교, 여의도여고) 대학은 가톨릭 대학 심리학과를 나왔구요. YTN에 오기 전까지 중앙SO에서 아나운서를 했습니다.

▶ 별명은?

- 술을 잘 못 마셔요,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마시면 눈 주위부터 하얘지는 기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럴 때 모습이 마치 너구리같다고 친구들이 '너굴' 이라고 부릅니다. 순하진 않은데... 순해 보인다고 바둑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때 친구들이 지금은 이 별명 잘못 지은듯하다고 하긴 하지만...

▶ 취미는?

- 보기와는 달리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겨울만 되면 스노우 보드를 들고 하얀 설원에서 살다시피 한답니다. YTN에 스키와 날씨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인라인 스케이트는 그냥 안 넘어질 정도, 수영은 접영까지 완벽히 마스터했습니다. 친구랑 영화보는 것도 즐기는 편인데요, 기상 캐스터 되려고 그랬나요? 미셀 파이더가 나오는 업크로즈엔 퍼스널을 무려 7번이나 봤습니다

▶ YTN에 대한 느낌은?

-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가족적인 유대감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선배는 후배의 영원한 봄"이라는 말에는 문화적인 충격까지 받았습니. SO에서 방송을 접하긴 했지만 더욱 전문적이고 자기 일에 대한 고집과 주관이 뚜렷한 선배들이 부럽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어떤 기상 캐스터가 되고 싶어요?

- 단순한 날씨 아닌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혜윤이 하는 날씨를 들으면 행운이 온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계차도 많이 타고 싶어요. 예전 유현주 선배가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중계차를 타시다가 번개에 맞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긴박한 날씨 상황에서 생생한 날씨 정보를 전해 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번개 한번 맞아 봐도 좋지 않을까요?

새로운 YTN 보도 정보시스템



박형일 (디지털기획부)

새로운 보도정보시스템은 노후 된 BASYS 시스템을 교체하고 방송 기사의 취재, 작성, 편집, 승인, 검색, 큐시트의 운용 등 뉴스의 전반적인 취재 분야와 방송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보도정보시스템의 특징은 ①뉴스의 신속, 정확성에 대응해 언제 어디서나 기사 작성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②기사와 관련된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됐고 ③윈도우 기반으로 개발되어 아래한글이나 MS Word 등을 사용하던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사작성시 인터넷(ADSL, 두루넷등)이나 전화에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고 로컬 PC에서 작성하여

통신 접속이 가능한 곳에서 일시에 전송도 가능하다.

방송된 기사는 반영구적으로 보존되어 수년 후에 제목을 몰라도 검색어로 찾을 수 있고 기사작성 도중에 영상자료도 검색이 가능하다.

런다운의 작성이 편리하고, 방송진행시 다양한 방송장비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영상 취재부에서 화면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면 런다운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또 취재기사를 승인할 때 승인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영상과 연계되도록 했으며, 디지털 뉴스룸 시스템으로 방송 순서에 따라 영상의 스케줄링이 가능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듣기위해 회사의 전 PC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 사내 네트워크의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용자 화면(GUI : Graphic User Interface)의 요구사항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것은 사용자에 따라 취향이 틀려서, 서로 다른 화

면과 버튼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작업이기도 하다. 영상자료에 관련된 자료는 이미 새로운 시스템에 옮겨져 있어서 비공식적인 사용은 가능하다. 영상자료 찾기가 불편했던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바로 사용해 보는 것도 좋다. 새로운 보도정보시스템은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범용화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망의 개방성으로 인하여 외부/내부에서 발생하는 보안을 저해하는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첨부파일 등을 통해 침입하는 바이러스 등은 각 개인 PC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지)비용의 보안정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제적 사안들이, 회사의 막대한 보안비용을 투자해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도정보시스템을 빨리 Open 하기위해서는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접속하고 사용해 보는데 따라 달려 있다. 새로운 보도정보시스템은 종합 디지털뉴스룸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1단계입니다. YTN이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세계의 뉴스 및 정보화시대에 앞서나가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게시판

포상

- 특종상 금상 조영권·여승구 (전주지국)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CCTV 화면 단독 보도, 기정호 (문화과학부) 김선중 (사회1부) 인터넷 대란 보도
- 특종상 은상 배성준 (경제부) 안전기준 마련 전 대구지하철 전동차 제작
- 특종상 동상 함형건 (편집1팀) 정수장 수돗물에서 병원성 원생동물 검출 보도, 한정호 (제작2팀) 염해진 (영상취재부) 이종간 장기이식 최초 성공 보도

공로상 안용고 (디지털기획부) 인터넷대란 신속대처... 3. 3

- 입사 조미선(편집1팀) 신동훈(편집2팀) ... 3. 4, 정혜윤(문화과학부) ... 3.13, 진성훈(영상취재부) ... 4.14
- 퇴사 강수진(앵커팀) ... 3. 31, 황현주(디지털뉴스팀) ... 4. 11
- 휴직 김원배 차장대우(경제부) ... 4. 1
- 부음 김용영(중계부) 부친상 ... 3. 3, 김지영(편집3팀) 부친상 ... 4. 11

손재호(대구지국) 모친상 ... 4. 21

- 회감 이성호(제작기술부) 모친 ... 3. 17, 권한주(영상취재부) 모친 ... 3. 22, 고민철(영상취재부) 모친 ... 4. 8
- 결혼 현정현(타워사업국) 자녀 ... 3. 1, 정현교 강릉지국장 ... 3. 15, 황순욱(앵커팀) ... 3. 28, 이종구(사회1부) ... 4. 5, 김진디(사회2부) ... 4. 26, 정찬배(앵커팀) ... 4. 26
- 출산 조승희(국계부) 아들 ... 4. 9

프로그램 탐방 - 「과학과 미래」 제작기

YTN

“아는 만큼, 감동이 된다”



‘산타클로스는 왜 빨간 옷만 입는지 알아?’ ‘배고플 땐 왜 꼬르륵 소리가 나지?’ ‘골치 아픈 문제를 왜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 모 검색엔진 사이트의 광고를 보는 순간, 바로 저거다! 싶었다.

아직 찬바람이 가시지 않은 2월 중순. 8층 회의실에서 무려 20명에 가까운 스태프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하며 하나씩 가다를 잡아나갔던 우리 프로그램의 제작방향! 그래... 바로 이거였다. 평소에는 모르고 지나쳤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상식들. 거창한 과학 기술이나 과학계 이슈는 아니지만 일반인 대다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지만 속이 꽉 찬 ‘과학’이라는 이름의 정보들이 녹아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일상생활 속에 스며있는 과학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방법론이 대두하자 그저 쉽고 편하게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선, ‘과학’ 스텝(?) 많은 재미있고 눈에 확 띄는 타이틀이 필요했다. ‘사이언스+’ ‘과학@조이’ ‘과학 리브레터’ 등등의 제목이 거론되었으나 결과는 ‘과학과 미래’ 라는 너무나 과학스러운(·) 타이틀로 낙찰!

다음으로, ‘과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딱딱함을 쉽고 부드럽게 포장해서 배달할 친숙한 진행자가 필요했다. ‘과학과 미래’ 라는 다소 무거운 제목을 상쇄시켜줄 여자 진행자라면 더욱 좋겠지...

결국, ‘과학과 미래’ 의 전신 프로그램이랄 수 있는 ‘웰컴 사이언스’ 의 진행을 맡았던 전 앵커 김소영씨가 한 배를 타게 되었고, 결혼과 함께 넉넉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신

한 그녀는 매일 밤낮으로 과학 전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쉽고 재미있는 과학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데일리로 방송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제작팀은 주 5일 코너 전부를 다 과학적으로 포장하지는 말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한국과학문화재단과의 견조를 끝에 요일별 특화 작업에 들어갔다.

월요일은 종합 매거진 성격으로 다양한 과학 정보의 물량공세가 펼쳐진다. 먼저, 본사 한정호 기자가 한 주간의 과학계 뉴스와 신기술을 소개하고, 한국 사이버대학교 교수인 박동수씨가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디지털을 말랑말랑한 ‘문화’와 접목시켜 하나의 ‘트렌드’로 다루는 ‘코드명 디지털’이 이어진다.

‘코드명 디지털’의 경우는 시청자의 피드백 이전에 제작진이 먼저 중독되기 일쑤여서 ‘디카족’ ‘아바타족’ 등 그 주에 다룬 아이템이 한 주 유행어가 되곤 한다.

화요일은 그야말로 생활과학 이야기로,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요일이기도 하다. 일상 속에서 과학의 원리를 재발견하는 ‘사이언스 X파일’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한방을 재조명하는 ‘21세기 한방과학’ 두 코너로 구성되는데... 한방과학의 경우, 아무래도 건강정보라는 코너 성격 탓인지 시청자의 반응이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코너가 되었다.

수요일은 한 박자 쉬어가는 뜻에서 영화 속에서 과학적 오류와 재미를 찾아보는 ‘시네마 사이언스’와 지구촌 사람들의 별난 과학이야기를 소개하는 ‘사이언스 토폭’으로 구성하였다. 영화를 보는 재미와 가벼운 토폭이 제공하는 과학적이지 않은 과학정보가 일주일의 한가운데에 자리

한 수요일을 다소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목요일은 송경철 앵커와 함께 하는 대담으로, 그 어떤 분야에도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사람! 과학자가, 교육자가, 예술가가 이야기하는 과학에 귀기울이는 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과감하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다. 두 명의 피디가 격주로 1편씩! 무리한 스케줄인 줄 뻔히 알면서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려고 얼마간의 출혈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매일 밤낮으로 과학 프로그램과 씨름한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난 지금...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빈틈없이 잘 짜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큰소리치진 못한다.

영똥한 호기심과 기발한 발상에서 시작되는 과학적 재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과 미래’ 제작진이 일주일 내내 떠올리는 화두와도 같은 좌우명 하나. “진부한 아이템은 없다! 진부한 제작진만이 있을 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감동한다 했던가. ‘과학과 미래’ 제작진은 감히 욕심을 부려본다.

“과학이야말로 생활 속에서 아는 만큼 편리해지고, 그 삶은 감동이 된다”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설거지를 하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며, 또 지하철 안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우리들만의 귀여운 아이디어로 불편함을 편하게 바꾸어 생활하고 있다.



김지현 (‘과학과 미래’ 작가)

프로그램 탐방 - 낮 12시 '뉴스 퍼레이드'

원칙이 바르고 선입견이 제거될 때...



낮 12시부터 오후 1시반까지 계속되는 '뉴스 퍼레이드'. 매일 90분, 90이라는 숫자의 위압감이 이리 클 줄 정말 몰랐다.

신동윤(부국장)...우리 대장. 뒤늦게 알았지만 속에서 에너지가 펄펄 끓고 있는 사람이다. 녹취 찾아 뛰어 다니기도 하고 AD하겠다고 팔도 걷어 붙인다. 무엇보다 대장은 '라이브 뉴스의 표준'을 세우느라 매일 아침 시끌시끌하다. YTN은 살아있는 뉴스를 수없이 외쳐왔지만 전화나 중계 같은 포맷이 어때야 하는 지 YTN은 표준을 공유한 적이 없다. 전화는 리포트 만들 시간이 촉박할 때 하는 것이고 중계는 기자 얼굴이 앵커 얼굴과 나란히 나오는 좀 풀나는 뉴스 형식일 뿐이다. 한마디로 라이브를 가장한 '뉴스짜고 치기다'.

도대체 질문과 답변이 완성된 라이브가 어떻게 라이브인가 말인가. 살아있는 표준이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지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나저나 대장님, 자판은 언제 배우실 겁니까?

송경철...이 양반만 쳐다보면 웃음이 절로 난다. 화면 속 모습과 실제 모습이 저리 다를 수 있을까? 요즘엔 기러기 아빠라 두 얼굴의 대비는 더 선명하다. 형수가 어서 오셔야 할텐데... 뉴스 퍼레이드가 색다르다면 앵커가 색칠할 여백이 어느 뉴스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일 게다. 매일 90분을 혼자 떠드는(?) 것만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닐텐데 질문 준비하라 화면 미리 들여다보라 앵클립 구상하라... 그 뿐인가? 스포츠, 인터넷, 연예 뉴스까지 뉴스 퍼레이드를 보고 있으면 앵커의 '오지랖'이 보통 넓어야 하는게 아니구나 느껴진다.

앵커에게 틀을 강요하지말고 여백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송경철이라는 앵커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쯤이면 선배들에 대한 '쪼찡'은 된 거 같고...내 얘길 좀 해야겠다. (후배들아...그대들을 위한 나발은 평소에 불고 다니니 서운치 마시게나.) 노종민...방송 기자 10년 차인 이 친구는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런 결과인데지만 주변으로부터 '아이디어가 좋다는' 평가를 심심찮게 들어왔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마누라한테서는 '잔머리의 대가'라는 규정을 받고 있는 터라 이런 평가를 들

을 때마다 '아이디어=잔머리'의 등식이 떠올라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뉴스 퍼레이드의 몇몇 코너와 관련해서도 '아이디어 좋다'라는 말이 종종 들린다. 물론 덕담인 것은 알지만 할 말이 좀 있다. 매일 90분짜리 프로그램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나? 뉴스 퍼레이드라는 '괴물'을 맡고부터 이 물음이 온통 머리를 지배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원칙부터 세웠다. 한사라도 더 빠르게,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그리고 항상 경계해야 할 것도 정리했다. '선입견과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는 경계대상 1호이다. 예들려 왔는데 앞에서 '아이디어' 운운한 것은 바로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이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뉴스 퍼레이드에는 베이스에 접속해 기사를 보는 '기사 로그인'이라는 코너가 있다. 앵커가 직접 베이스에 접속해 새로 승인된 기사를 전한다. 화면은 베이스 화면 그대로... 내가 생각해도 아이디어 곳이다... 하지만 차별화하겠다고 머리를 썼다기 보다 '뉴스를 빨리 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결과'로 봐달라는 말이다. 뉴스의 차별화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감히 한마디 드리고 싶다. '차별화'는 목표도 대안도 아니다. 원칙이 바르고 선입견이 제거될 때 저절로 생겨나는 '별책부록'이다. '차별화 할 방안을 찾으라'는 말은 '원칙을 구현할 방안을 찾으라'는 말로 대체돼야 한다. 입체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그래서 재미있는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고지는 멀었지만 길은 나섰다고 생각한다. 노종민(편집 2팀)

프로그램 탐방 - 밤 9시 '뉴스 포커스'

밤 9시 뉴스 차별화... 지상파와 경쟁



YTN에서 밤 시간대의 대형 특화 뉴스 프로그램은 '없어야 할 프로그램'이다. 적어도 이론상으론 그렇다. '선택과 집중'이란 보도국의 운영원칙에서 봐도 그렇다. 주력 시간대인 낮시간에 보도국이 공들여 제작한 리포트나 단신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추가로 많은 품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30년째 쌓은 공중과 종합뉴스의 아성이 버티고 있는 9시라면 더욱 그렇다. '무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다.

유감스럽게도 편집부 밤팀이 맡은 밤 9시 뉴스포커스는 이런 우려를 모두 떠안고 출발한 프로그램이었다. PD를 맡고 처음엔 정신이 아득했다. 개편 1주일 전이었다. 주변에서 9시뉴스를 걱정하는 소리를 수십번은 들었다. 혼자 되물은 것이 수백번은 됐다. "뉴스포커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데스크와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곰곰이 생각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은 될까? 의외로 해답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점을 장점으로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화려한 외양으로 장식하는 대신 가식없이 단순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 대신 앵커의 역량에 최대한 의존하는 것. 앵커의 개인적 퍼스널리티와 역량으로 시사문제를 맛깔나게 요리하며 청취자를 사로잡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처럼 멋진 뉴스쇼 프로그램을 밤에도 하나쯤 가져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보통 뉴스 포커스는 크게 3개의 단락으로 이뤄진다. 그날의 핫뉴스를 깊이 있게 다루는 내부 기자출연코너. 역시 중요이슈를 집중 진단하는

외부 전문가 출연 코너. 요일별로 정치, 경제, 문화, 연예, 영화 등 각 분야를 외부 언론사의 전문기자들이 분석하는 기자의 눈 코너 등이다. YTN이 취재했지만 기존의 방송포맷에서는 버리고 마는 아까운 방송 녹취나 화면들이 구성물로 출연 코너 중간 중간에 끼어 들어간다. 내용은 진지하지만 출연자들은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목에 힘을 빼고 방송에 임한다. 편안한 심층뉴스가 모토다. 집중진단 시사 프로그램이야 기존에 다른 채널에도 많았는데 뭐가 다르냐고 한다면 섬세한 말씀이다. 국내 방송뉴스 외부 신문기자들이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방송이란 방송뉴스의 매력에 인쇄매체의 깊이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다. 모두 한 분야에 5년에서 많게는 20년 이상 내공을 담은 전문가들이다.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자. 기존 방송이나 신문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비하인드 스토리와 전망까지 거

침없이 쏟아진다. YTN 기자들의 출연코너도 만만치 않다. 물론 서로 원고를 미리 준비해 생방송에 임하지만 메인 앵커인 김호성 앵커와 지금 진행하는 정애숙 앵커의 질문은 예측불능이다. 대화의 맥을 따라 예정에 없던 질문도 심심찮게 날아간다. 이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보도국 기자들의 역량도 대단하다. 진행PD 입장에서선 입안이 바짝 타오르고 이슬이슬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더욱 재미있다. 외부 전문가들은 아예 원고없이 생방송에 들어간다. 하지만 질문 하나를 위해 두 번 세 번 고민하고 공부하고 출연자와 의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아직 방송횟수가 많지 않았지만 출연인물은 되도록 형식과괴를 원칙으로 다양하게 출연시킬 것이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에서 신세대 연예인까지 제한은 없다. 이같은 YTN 뉴스포커스는 달라진 뉴스 시장의 환경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초고속인터넷에 모바일 뉴스까지 등장한 요즘, 뉴스 수용자들은 웬만한 주요뉴스는 낮 시간대에 이미 다 파악하는 것 같다. 정색하고 9시에 안방에 앉아서 공중과 뉴스를 보는 사람도 상당수는 뉴스를 '복습'하고 있는 셈이다. 낮에 YTN을 보았거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뉴스속보를 접한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 한층 더 차별화한 심층 방송뉴스를 보고 싶어하는 뉴스 매니아도 많을 것이다. 구대의연한 백화점식 저녁 종합뉴스와는 다른 재미있는 심층 뉴스 쇼가 하나쯤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뉴스는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딱딱한 뉴스가 아닌 디지털 세대의 구미에 맞는 입체적이고 쌍방향의 성격을 띠어야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뉴스포커스 혹은 여타 다른 프로그램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함형 건(편집 1팀)